

SK바사, 콜롬비아에 백신 기술이전... 중남미 시장 확대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 통해 콜롬비아 백신 자립 등 협력 안정적 백신 공급 기반 확보 기대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 이전



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 수출용 제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 백신을 기반으로 콜롬비아 정부와 함께 35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단순히 백신 수출을 넘어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 기반 구축까지 연계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localization)’ 사업을 통해 중남미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콜롬비아 국영 제약기업 VECOL과 백신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가 주도하고, 콜롬비아 국립보건원(INS)과 국영 제약기업 VECOL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백신 자국화 사업의 일환이다. 향후 10년간 약 2억6000만 달러(약

3500억원)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콜롬비아 정부가 백신 자립 기반 구축과 국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VECOL은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대표 실행기관으로 지정돼 사업 전반의 실행을 맡게 됐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콜롬비아 내 생산시설 구축과 제품 도입, 규제 승인과 생산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노하우 이전 등을 수행하게 된다. VECOL은 생산 시설 설립 및 운영, 정부 인허가 확보, 국가 예방접종사업(NIP) 연계, 정부기관 협력 등을 맡는다.

초기 기술이전 대상 품목으로는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SKYVaricella)’가

선정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백신인 스카이바리셀라를 기반으로 현지 생산 및 기술이전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추가 백신 제품군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물론, 향후 콜롬비아 정부가 도입할 다양한 제품군도 해당 시설을 활용할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범미 보건기구(PAHO)로부터 콜롬비아향 스카이바리셀라 95만 도스의 연내 공급 요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0만 도스에 대한 최종 구매 주문도 확보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백신 자국화 프로젝트는 중남미권 전반의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협력을 중남미 지역 내 생산 거점 확보 및 중남미 기술이전 프로젝트 확대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루시아 아얄라(Lucia Ayala) VECOL

대표는 “이번 협약은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바이오 기술 이전을 넘어 지식과 역량을 축적하고, 공중보건과 보건주권 분야의 전략적 역량 회복을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축적된 백신 개발·생산 역량과 글로벌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대응과 지속가능한 백신 공급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PAHO 수두백신 입찰에서 첫 수주에 성공한 이후 중남미 시장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신뢰를 구축해왔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도 순항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태국 등 주요 국가들과도 백신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 기반 구축 협력을 추진하며, 지역별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연계한 글로벌 백신 사업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셀트리온, 신약개발·제조·사무 AI 도입

신약개발 부문서 AI 적용 가장 활발
신설공장 중심 피지컬 AI 적용 집중
단순업무처리 소요 시간 90% 단축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 제조, 사무 등 3대 주요 업무 영역에 인공지능(AI)을 전격 도입하며 글로벌 제약 시장 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AI 전환(이하 AX)을 통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보다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AI 적용이 가장 활발한 부문은 신약 개발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AI 기반 신약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생물정보학(BI)과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타깃 후보물질 발굴, 검증, 최적화 등의 개발 업무에서 단계적으로 AI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소요되는 개발 기간

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 부문에서는 신설 공장 중심으로 피지컬 AI를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집중한다. 송도에 건설 예정인 신규 원료의약품 4, 5공장에 자율이송로봇(AMR), 자동화 물류 창고, 지능형 로봇팔 및 협동로봇, 제조 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해 공장 자동화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공장 준공 시점까지는 우선적으로 정형화된 작업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이후 고부가가치 판단 업무 등에 AI를 접목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무 부문에서는 이미 데이터 분석과 대시보드 구축, 인사이트 도출 등에 AI를 적극 활용 중이며 점차 업무 적용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다. 특히 회사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에 챗봇을 적용한 시물레이션 결과, 서류 검색 등 단순 업무 처

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80~90% 단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셀트리온의 AX는 현업 임직원이 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과 전사적 차원의 솔루션 개발인 탑다운(Top-down) 방식의 ‘투트랙 전략’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현업의 자발적인 AI 활용을 확산하고 업무 흐름별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단기적인 업무 편의성 향상은 물론, 사업 전 과정에서 AI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중장기 성과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 도입하고 있는 AI 기술은 실질적으로 업무 자동화의 폭을 넓히고 업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신약 개발부터 사업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AI 밸류체인을 완성한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장기지속형 비만치료제 연구성과 공개

인벤티지랩, 美 ADA서 발표 예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오는 6월 5~8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미국 당뇨병 학회(ADA)’에 참가해 자사의 장기지속형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 성과를 포스터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ADA에서 인벤티지랩은 세마글루티드(Semaglutide) 기반의 월 1회 투여 장기지속형 주사제(LAI)인 ‘IVL3021’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선보인다. IVL3021은 인벤티지랩의 핵심 기술인 ‘IVL-DrugFluidic’ 플랫폼이 적용된 제형이다. 이 기술은 균일한 입자 제조를 통해 약물 방출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며, 기존 치료제 대비 초기 방출(burst)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치료 농도를 유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는 IVL3021의 우수한 체내 노출도와 이에 따른

용량 의존적인 체중 감소 효능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존 주 1회 투여 제형의 한계를 보완하여 월 1회 투여만으로도 효과적인 체중 관리가 가능함을 입증했다. 또한, 기존 약물 투여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체중 반동 현상을 IVL3021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유지요법’으로서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파이프라인인 ‘IVL3024’에 대한 연구 결과도 공개된다. 티르제파타이드(Tirzepatide) 기반의 IVL3024는 비임상(mini pig) 평가에서 단회 투여로 4주 이상 장기간 안정적인 약물 노출 특성을 확인했으며 우수한 약동학적 프로파일과, 제제적으로 마이크로스피어에 캡타이드 약물의 고함량 로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인벤티지랩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GLP-1/GIP 이중 작용제(dual agonist) 기반의 LAI 플랫폼으로 파이프라인을 적극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국가바이오혁신위, ‘민·관·데이터’ 협의체 첫걸음

정책 수요·현장 의견 수렴 소통 창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바이오 분야의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아우르는 소통 채널을 본격 개동한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민간 협의회’, ‘공공 연구기관협의회’, ‘데이터협의회’ 등 3대 협의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3대 협의회는 국내 바이오 분야를 대표하는 협회, 단체, 공공 연구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향후 바이오 산업 전반의 정책 수요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각 협의회는 첫 회의부터 분야별 핵심 당면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우선 민간 협의회는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지난달 16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공유하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공공 연구기관협의회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기관 간 연구개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바이오 정책을 제안하는 등 협업 방안을 잇는다.

데이터협의회도 실행력을 높인다. 국가

보유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 방안과 활용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둔다. 향후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확장된 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처럼 각 협의회에서 발굴한 중요 과제를 실무 검토를 거쳐 위원회 차원의 공식 정책 과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장 목소리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정책 수립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3대 협의회 출범은 현장과 정책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촉촉한 입술관리와 광채 표현 한 번에”

애경산업 ‘에이지투웨니스’
립시크 글로우 세럼 10종 선배

애경산업은 스킨 퍼스트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에서 립시크 글로우 세럼 10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스킨케어 성분을 70% 함유해 보습 효과를 갖췄다. 세럼 제형으로 촉촉한 입술 관리와 광채 메이크업 표현을 동시에 구현한다.

또 9종 히알루론산, 3종 세라마이드, 12종 펩타이드 등 총 24가지 성분도 더해져 입술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입술 거칠기와 처짐의 외부 원인 중 하나인 자외선까지 고려해 SPF20/PA++ 수준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적용됐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립시크 글로우 세



에이지투웨니스 ‘립시크 글로우 세럼’./애경산업

럼 1회 사용 직후 입술 광택 1463.0%, 입술 보습 54.4%, 입술 각질 79.3%, 입술 잔주름 커버 10.00% 등 개선 지표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총 10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자연스러운 누드톤 중심의 ‘모닝 시크 라이트 톤’으로 01~04, 생기 있는 계열로 ‘애프터눈 시크 미들 톤’ 05~07, 깊이 있는 분위기의 ‘이브닝 시크 딥 톤’ 08~10 등으로 다양한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